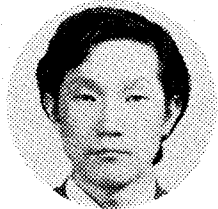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克服하였다



# WIDE-VISION

崔 海 龍

(株) 鮮光學 副社長

## 起死回生の 邊境에서

技術은 科學에 의해 이해된 概念을 經濟的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藝術이다.

發明은 이러한 藝術의 꽃이다. 그러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刻苦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꽃은 결국 産業化란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무의미 하다. 그 理由는 産業化를 通해 發明家は 發明의 代價를 얻을 수 있으며 수요자는 産業化를 通해서만 그 技術의 실제적인 需要를 充足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發明은 成功의인 企業化를 前提로 하지 않는 限 그 意味가 없다.

“必要는 發明의 어머니”라는 것은 必要하지 않은 것에 發明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점점 文明이 發達할 수록 充足된 生活을 누리고 그러한 充足된 生活속에서 우리는 자칫 發明의 어머니가 그 무엇인가를 잊어 버릴 수 있다.

여기서 重要한 것이 創造力이다. 未來의 必要性을 미리 豫見할 수 있는 創造力, 未來의 必要性을 미리 創造하려는 積極的인 자세, 이것이 앞으로 資源貧國인 우리가 先進國에 到達할 수 있는 捷徑일 것이다.

筆者는 倭政時代부터 光學事業을 營爲해온 父親의 영향을 받아 光學의 生産技術을 일찍부터 接할 수 있었고 실제 父親會社에서 技術, 經營을 터득했었으나 이러한 技術과 製品이 例年이나

다름바 없는 것이 대단히 不滿이었으며 또 실제 外國바이어들과 接할 수 있는 機會가 많았던 本人으로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油價引上등으로 原資材, 人件費등은 上昇하는 데도 받을 수 있는 價格의 引上幅이란 거의 限定的이었으며 舊態依然한 模倣製品은 불리한 價格競爭만을 誘發할 뿐 實質的인 所得이 없었다. 또 會社 自體가 資本金의 零細性으로 많은 施設費를 投資하고 높은 人件費를 써서 附價率이 높은 反面에 危險率이 많은 技術製品을 生産하기 보다는 安全하게, 적은 施設費에, 적은 人件費에, 손쉽게 生産할 수 있는 손쉬운 製品쪽에 먼저 投資되기 마련이었으며 결국 이러한 손쉬운 製品은 적은 마진을 때로는 維持하기에 급급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技術開發에는 미처 生覺할 겨를도 없이 現狀維持에만 급급한 惡循環만 되풀이 하다가 결국은 油類波動과 같은 外的인 衝擊에도 休業狀態를 면할 수가 없었다.

## 信念을 안고 挑戰

그런데 本人으로서의 會社의 이러한 休業狀態가 轉禍爲福의 契機가 되었다. 그동안 어떠한 製品이 바이어들에게 人氣가 있었고 잘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당장 몇일 후면 닥쳐올 人件費支出, 物品代支출때문에 미처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本人에게 時間의 餘裕가 생긴 것이다. 또 會社를 일으켜야 한다는 急迫한 주위 여건이 나의 鬪志를 살릴 수 있었으며 또 舊態依然한 從來의 方法으로 會社를 다시 經營

해 봤자惡循環만 뒤풀이 되므로 新技術로 다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創造力을 갖게끔 誘導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텔레비전畫面을 擴大할수 있는 透寫裝置의 開發이었다.

몇몇 既存 外國 去來先에 이러한 나의 計劃을 비쳤을 때 대단한 反應을 얻었다. 여기에 자신을 얻고 그간 데리고 있던 몇명 從業員은 後日을 約束하고 他會社에 轉職을 시켰다. 하나 事業의 失敗뒤에 開發이란 그리 쉽지가 않았다. 우선 생활비가 급급한 판에 開發費 投資란 容易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光學産業 基盤이 脆弱한 환경에서는, 예컨대 日本에서는 當日 구할수 있는 것이 우리는 몇주일씩 걸릴뿐 아니라 價格도 몇배 이상의 高價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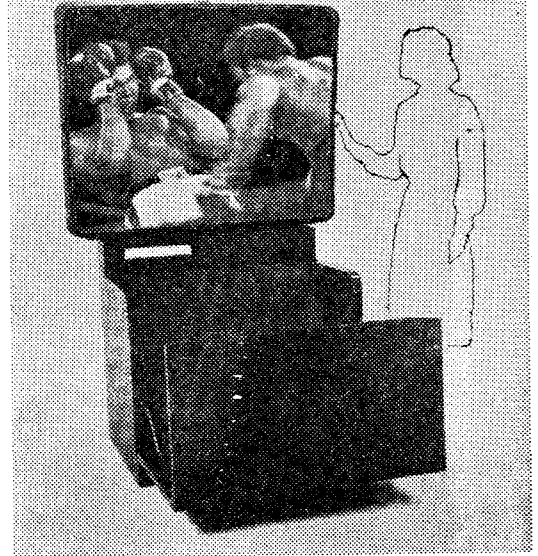
外國보다 開發與件이 사사 건건마다 우리가 몇배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우리는 工場 한구석의 기숙사를 改造하여 생활 더전으로 삼고 開發費를 充當했다. 물론 工場은 당시 電氣料金 滯納으로 短電狀態에서 촛불을 켜야했다. 결혼한지 1년밖에 안된 신혼살림에 아내가 가여웠다. 研究開發에만 급급한 것이 나만의 욕심인 것 같았다.

“취직할까?” 몇번이고 아내에게 자격지심으로 提議하였으나 그때마다 촛불을 켜두고 훌쩍도 아닌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도우려 나선다. 이때 겪은 고생은 어려울 때마다 경험으로 살아나 나에게 커다란 原動力이 되었다.

## 刻苦의 열매가 맺고

결국 이러한 고생 끝에 텔레비전 投射렌즈 光學系는 資料蒐集, 檢討 및 理論定立에 1年半, 샘플製作 및 試驗에 2年半, 原價節減 및 品質調整을 勘案한 生産技術定立에 1年半, 이렇게 해서 5년이란 開發期間에 開發費 2億원을 投資하여 적지 않은 負債와 함께 開發을 完成, 1980年 10月 特許權獲得, 81년에 電子博覽會에서 輸出注

MV-60"  
MV-70"



文을 받고 同年 12月에는 韓國發明特許協會의 發明獎勵大會에서 銀賞을 受賞, 82年 4月 韓國 技術開發株式會社와 合作으로 (株)鮮光學을 設立여하 또 다른 意味의 새로운 出發을 하였다.

本人은 아직도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터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비전이 있다. 또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의 “鮮光學”은 世界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利益의 30% 以上을 과감히 開發費에 再投資할 것이다.

細密한 特許戰略을 세워 外國 各市場을 파고 들것이다. 항상 미래를 실천하는 創意力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發明人도 옛날과 다른 開發의 成功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企業化로 成功할수 있는 眼目を 넓히고 후속 開發商品을 부단히 發明하여 新技術에서 앞서 나가는 先見을 가진 TOTAL디자이너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 할 것이다. ☺